



What's new

Connect for Impact

제 50 호 | 2021.06.29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팬데믹 여파에도 500 대 아태 테크기업 평균 551% 성장](#)

[코로나 19 로 시작된 '집밥' 트렌드, 팬데믹 끝나도 이어진다](#)

[딜로이트 안진, '2021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재무자문본부 대규모 경력직 공개 채용](#)

[딜로이트 안진, 상장회사협의회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 업계 유일 광고비 효과성 '진단' 서비스 선보인다](#)

[일하는 여성 77% "코로나 19 팬데믹 일터·가정 부담 모두 가중"](#)

[김점표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당선](#)

[전세계 밀레니얼·Z 세대,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팬데믹 여파에도 500 대 아태 테크기업 평균 551% 성장

딜로이트 '2020 아시아 퍼시픽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 발표... 한국 '에이비엘바이오 8 위 등극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을 포함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글로벌이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근 3년간 고속성장을 기록한 500대 기술기업을 선정하는 '2020 아시아 퍼시픽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2020 Asia Pacific Technology Fast 500. 이하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9년째를 맞이한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은 해마다 아태지역에서 가장 저명한 테크놀로지 어워드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미디어, 생명과학, 친환경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이 정신으로 고속성장을 이룬 500대 기업을 선정합니다.

올해 상위 500위에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551%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평균 매출 성장률이 사상 최고치(987%)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 717%로 성장세가 지속됐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폭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중 5곳이 중국기업으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이들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표 1) 평균 매출 증가율 17,915%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중국 스타트업 '터쓰렌(特斯联, TERMINUS)'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터쓰렌은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재, 전력 관련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해 산업 전반에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 '2020 아시아 퍼시픽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 상위 10대 기업

순위	국가	기업명	성장률	분야
1	중국	Terminus Technologies Group	17915%	소프트웨어
2	대만	TaiMed	8251%	생명 과학
3	중국	Shenzhen Dogcare Innovation And Technology Co., Ltd	8003%	하드웨어
4	대만	PEC	7476%	생명 과학
5	인도	RUPEEK FINTECH PRIVATE LIMITED	7295%	소프트웨어
6	일본	Stamen Co.,Ltd.	5914%	소프트웨어
7	중국	Newlink (Beijing) Technology Co., Ltd	5777%	소프트웨어
8	한국	ABL BIO INC.	5485%	생명 과학
9	중국	Beijing Milian Technology Co., Ltd	5428%	미디어
10	중국	Shenzhen Zhuiyi Technology Co., Ltd.	4665%	소프트웨어

한편, 2020년에는 500대 기업 중 생명과학 분야 기업 수가 전년대비 9% 증가했습니다. 한국 생명 과학 분야 기업 20곳도 상위 500위에 포함됐는데, 이종항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손꼽히는 에이비엘바이오(ABL BIO)가 상위 10위권 내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혼(Mike Horne)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프라이빗 리더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업계 및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탁월한 탄력성, 창의성, 헌신을 보여주었다”며 “선정된 기업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 기업 발표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아시아 퍼시픽 지역 기업들에게 영감이 되어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손재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첨단기술 및 미디어, 통신산업(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TMT) 부문 파트너는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속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의 공통 특징은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 기업 발표가 여타 많은 기업들이 핵심 경쟁력을 분석하고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 아시아 퍼시픽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의 자세한 순위 및 내용과 후보 추천 및 선정기준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아시아 퍼시픽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 (Deloitte Asia Pacific Technology Fast 500)
올해 19 번째를 맞이한 '딜로이트 아시아 퍼시픽 테크놀로지 패스트 500 아시아 태평양(Deloitte Asia Pacific Technology Fast 500)'은 아시아 퍼시픽 역에서 가장 저명한 기술 분야 어워드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지역 10 개 나라 - 호주, 중국(홍콩 포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에서 기술 혁신과 기업이 정신으로 고속성장을 이룬 500 대 기업은 소프트웨어부터 생명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있습니다. 또한 500 대 기업은 SaaS,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부문에서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코로나 19 로 시작된 ‘집밥’ 트렌드, 팬데믹 끝나도 이어진다

딜로이트 소비자 현황 추적 보고서 발표...포스트 팬데믹에 배송 속도전 등 유통업계 경쟁 심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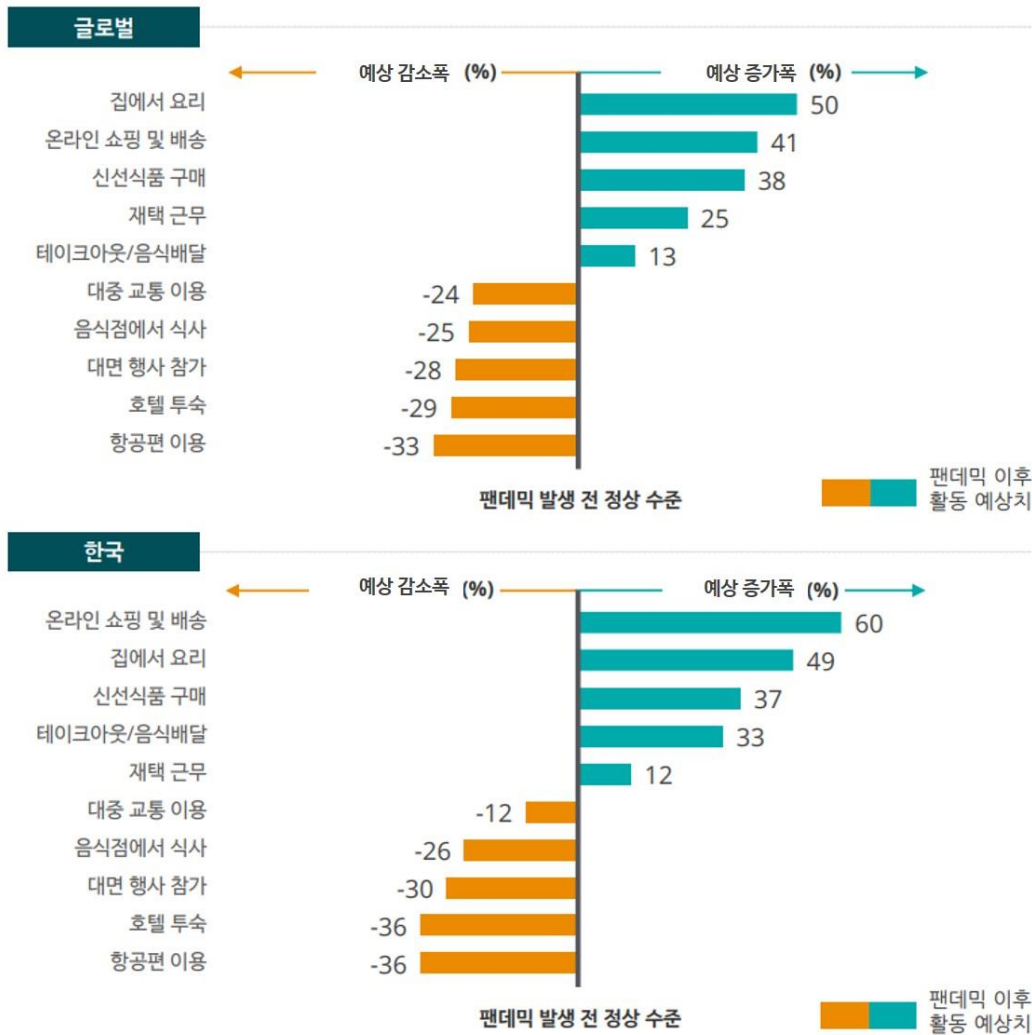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7 일, 딜로이트 글로벌이 18 개국 소비자 4 만 여 명을 설문조사한 ‘2021 년 딜로이트 소비자 현황 추적(Deloitte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2020-2021)’ 보고서 결과를 인용,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현재와 같은 ‘집밥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1 년을 넘어간 현재,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비대면과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이 18 개 국 4 만 명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집밥’을 즐기고 인파가 많은 곳에 대한 방문을 자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외식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도, 멕시코,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 소비자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행동에 대한 선호도가 글로벌 평균인 55% 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집에서 요리(49%)’ ▲‘온라인 쇼핑 및 배송(60%)’ ▲‘신선식품 구매(37%)’ ▲‘테이크아웃/음식배달(33%)’ 영역에서 팬데믹 이후 일상적 활동 수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60%)’ 이용 수준에서 글로벌 평균인 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 보다 온라인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글로벌 대비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1 참조>

<표1> 팬데믹 전후를 비교한 소비자 활동 수준 변화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3 가지 근거로 팬데믹 이후에도 ‘집밥’을 선호하는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첫째,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 형태가 지속되리라고 예상한 것, 두 번째, 팬데믹 위기로 인한 경제 악화가 이후에도 소비자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소비자 5 명 중 3 명이 현재 수입을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수입 대비 지출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선한 식자재를 주문하는 새로운 배송 서비스에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요리책과 주방용품 판매가 각각 17%, 32%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및 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리테일 업계의 배송 및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오프라인 간 채널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유통업체들이 배송 경쟁에 뛰어들면서 배송을 중심으로 한 리테일 업계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요 배달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의 틈새를 공략해 배송시간 단축, 품목 다양화를 통해 차별점을 내세우며 시장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해섭 한국 딜로이트그룹 유통소비재혁신그룹 파트너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서도 온라인 쇼핑과 신속 배송 서비스를 선호하는 기조는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및 글로벌 대형 유통사는 온라인 쇼핑 경험 혁신과 배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배송 관련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 라벨 및 패키징 기술이 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분야 발전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 년 딜로이트 소비자 현황 추적’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2021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접근성 높은 온라인 세미나 300 여 명 참석...한국 회계·세무에 대한 일본어 설명에 실무자들 큰 호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7 일 국내 회계 및외부감사제도, 개정세법, 세무 및 관세 조사 실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해설 내용을 일본어로 제공하는 ‘2021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딜로이트 안진의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세무 해설 세미나는 코로나 19 로 인해 올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참석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일본 기업 대상으로 국내 회계 및 세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열린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 약 300 여 명이 참석하며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서정욱 딜로이트 안진 Japanese Services Group(JSG) 리더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승수 회계감사본부 JSG 파트너가 ‘한국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주제로 일본과 국내 회계기준 차이점과 한국 고유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성재 세무자문본부 JSG 파트너가 세무조사 현황과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시에 알아야 할 점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 최신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규 세무자문본부 JSG 파트너가 일본계 기업들이 필수로 숙지해야 할 ‘2021 년 개정 세법의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관세조사 최신동향’ 세션에서는 한국 관세조사 심사내용과 과세 사례에 대해 다뤘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모든 세션을 일본어로 진행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계 기업의 주재원 그리고 일본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실무 담당자에게 한국의 회계 및 세무 사항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질의응답 세션에는 국내 IFRS 도입 현황, 고정사업장(PE) 과세,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 실태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가 오가며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정욱 딜로이트 안진 JSG 리더는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개최로 인한 높은 접근성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까지 300 여 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회계 및 세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치는 일본 기업들이 큰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세미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대규모 경력직 공개채용

임직원 '워라밸' 및 만족스러운 보상 실현... 딜 자문 등 3 대 분야 50 명 이상 대거 영입 예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자문본부(Financial Advisory)의 서비스별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이달 7 일부터 시작합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대규모 경력직 채용의 목적에 대해 전문가들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을 통한 '워라밸(일과 개인 삶의 균형)', 만족스러운 보상 두 가지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최상의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경력직 채용으로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확고한 포지션을 유지해온 강자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채용 분야는 기업 M&A 및 구조조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딜(Deal) 자문, 부동산·에너지인프라·리테일(REI)산업 자문,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 자문 등으로 6 월 7 일부터 시작해 50 여 명을 총원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수시채용 형태로 진행합니다.

딜(Deal) 부문은 국내 외 대기업과 사모펀드(PE)에 대한 M&A 자문, 재무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서비스를 포함해 구조조정 자문까지 전체 M&A 딜(Deal) 과정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며 경력 2~3 년 이상의 재무자문 및 감사 서비스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부동산·에너지인프라·리테일(REI)산업 자문 부문은 부동산 및 인프라 산업 전 영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 PF 자문, 매입 및 매각 자문을 포함해 호텔 및 리조트, 골프, 리테일, 에너지 및 인프라 등의 특수 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대합니다.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자문 부문은 국내외 선도 기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기업 부정 조사·방지와 법규준수 자문, 분쟁지원 서비스가 주요 업무로 데이터 분석에 이해가 있어야 하며, 기업 부정 조사 및 방지 자문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지원 방법은 딜로이트 안진 채용홈페이지(https://join.deloitte.co.kr/?icid=top_)에서 6 월 7 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이후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인터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코로나 19 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및 해외 지원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면접을 적극 도입합니다.

길기완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장은 “이번 채용은 코로나 19 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인재 영입으로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제고와 개인 삶과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상장회사협의회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이슈·이전가격·관세행정 설명... 지속적 온라인 세미나로 기업 실무진 적극 지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이하 상장협)와 함께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모빌리티 등 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지난 2월에 진행된 1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포함, 기업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2차 온라인 세미나는 유례없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이슈, 이전가격과 세무관리전략, 관세행정 트렌드와 올바른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해 기업 실무진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Post Covid-19 이전가격 전략'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이 파트너는 코로나 19 이후, 다국적 기업이 직면하게 될 이전가격 측면의 세무 이슈에 대해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과 국내 세법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뒤를 이어 서민수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뉴노멀 시대의 해외인력파견 글로벌 트렌드와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유정곤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트렌드 방향과 그에 따른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트렌드와 이전가격 및 세무관리, 관세행정 트렌드 등의 내용이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기업 실무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해야 할 기업의 실무자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변화된 세무 환경과 이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세무업무 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업계 유일 광고비 효과성 ‘진단’ 서비스 선보인다

글로벌 대형 광고주 81% 이용 중...국내 광고주 매체별 광고비 실적행 여부 등 투명성 검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6월부터 기업의 광고집행 효율성과 매체별 예산 적합성을 평가하는 ‘미디어 인증(Media Assurance)’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미디어 인증을 전담하는 미디어 컨설팅팀은 국내 빅 4 중 최초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비대면’ 중심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인플루언서,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광고채널이 등장하면서 기업 마케팅·광고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같은 광고·미디어 생태계의 빠른 변화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업의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과거에 비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광고시장의 경우 광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개선 위해 제 3 자에게 미디어 활동을 검증 받는 ‘미디어 인증(Media Assurance)’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고, 광고 업계 전반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광고주협회(WFA: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의 56 개 주요 회원사의 2018 년도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광고주의 90% 이상이 미디어 인증 서비스와 가격 검증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용하고 있고, 81%가 정기적이거나 영구적인 미디어 인증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특히, 71%의 광고주가 미디어 가치의 객관적인 시각을 수립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답하며 ‘미디어 인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내 광고시장은 2020 년 기준 약 14 조 원의 세계 7 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광고대행사, 업계 전반에서 광고비의 투명성과 효율성 검증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검증 시스템 및 해당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마케팅과 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 컨설팅팀을 출범,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광고시장 전반에서 기업이 광고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미디어 솔루션을 제시하는 ‘미디어 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갈 예정입니다.

미디어 인증 서비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중 광고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업이 가진 리소스와 다양한 매체별 특징을 명확히 파악해 타겟 고객 도달율이 떨어지는 광고비를 줄이고, 최적화된 매체에 적정 예산이 집행되는지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딜로이트 안진 미디어 컨설팅팀은 매체별 광고 예산 적정성 분석과 실적행 여부를 점검하고 광고 KPI 달성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믹스 모델링(Marketing Mix Modeling), 경쟁사 및 글로벌 기업을 분석한 마케팅·광고 벤치마킹 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제품 탐색, 검색, 비교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자구매여정(CDJ:Consumer Decision Journey)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 안진은 회계사 외에도 국내 최고 리서치 전문회사, 국내 최고 광고 대행사에서 이커머스(e-commerce)분석, 광고비 최적화 검증, 최적의 미디어 믹스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 전력을 다졌습니다. 회계법인 내부에서 미디어 인증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딜로이트 AP 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전략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훈 딜로이트 안진 미디어 컨설팅팀 리더는 “최근 객관적인 광고 인증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미디어 인증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일하는 여성 77% “코로나 19 팬데믹 일터·가정 부담 모두 가중”

코로나 19 가 직장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포용적 기업문화 여성 70% “생산성 좋음” 응답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6 월 10 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여성들의 커리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우먼 앳 워크: 글로벌 전망(Women @ Work: A global outlook)’보고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0 년 11 월부터 2021 년 3 월까지 전세계 10 개국, 18 세 이상 64 세 이하의 여성 5000 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51%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상와 가정에서 늘어난 책임감으로 향후 커리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한 여성의 77%가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책임감이 증가했다고 답했는데, 이 중 59%의 응답자가 팬데믹 기간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각각 35%, 24%의 응답자가 육아와 부양가족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사노동이 직장인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의 동기부여와 업무 몰입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들의 업무 만족도가 29%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57%가 일과 개인 삶의 불균형으로 인해 2 년 이내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성평등 수준 역시 팬데믹 기간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조사에 응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지난 1 년 동안 직장상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차별적인 행동을 경험한 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 4 분의 1 에 해당하는 여성이 ‘경력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차별적인 행동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비포용적인 직장 문화가 업무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포용적인 직장 문화에서 일하는 여성 중 29%만이 업무 생산성에 대해 ‘좋음’ 혹은 ‘아주 좋음’으로 응답한 반면 선진적인 기업 문화에서 일하는 여성의 70% 가 생산성 부문에 ‘좋음’ 혹은 ‘아주 좋음’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응답자의 72%가 직업만족도를 ‘좋음’ 혹은 ‘아주 좋음’으로 표시했으며 70%가 2 년 이내 이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 및 조직에 대해 직원들이 높은 신뢰도와 충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1 참조>

<표1> 포용/비포용적인 기업문화가 여성 인력에게 미치는 영향 비교

생산성



업무 만족도



충성도



■ 포용적인 기업문화 ■ 비포용적인 기업문화

미셸 파멜리(Michele Parmelee) 딜로이트 글로벌 부사장 및 최고인사책임자(Deloitte Global Deputy CEO & Chief People and Purpose Officer)는 “지난 1 년간 여성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 ‘퍼펙트 스톰’을 맞이했다. 이번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알려준다”며 “많은 기업들이 조직을 재건하고 있는 지금, 다양성과 포용성, 평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직장 내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직장내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인재들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및 ESG 센터장은 “기업 차원에서 여성 인력이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포용적인 조직문화는 여성 직원들의 업무 몰입감과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1 우먼 앳 워크’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www.deloitte.com/womenatwork)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김점표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당선

김점표 딜로이트 안진 고객산업본부 파트너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감사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5 월 21 일 한공회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입후보한 김 부대표는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6 월 16 일 한공회 제 67 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당선됐습니다. 한공회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김 파트너는 출마 시 정견에서 한공회 회무 효율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한공회 감사로 당선된 김 파트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을 대표해 한공회 감사로 선임돼 기쁘다”며 “한공회 감사로서 우리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빅 4 구성원으로서 한공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전세계 밀레니얼 Z 세대,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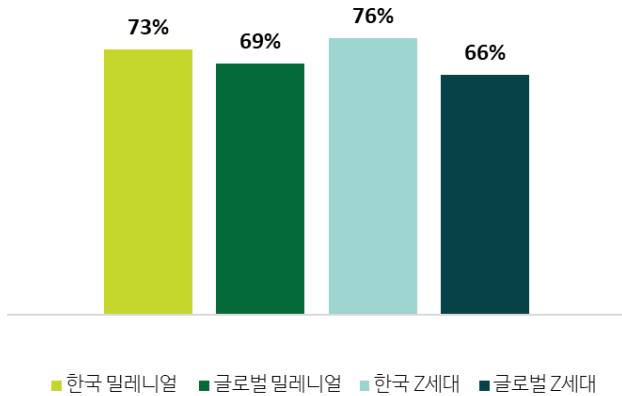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재정상태 우려 심화...한국 밀레니얼·Z 세대 미래 경제 전망에 “긍정적”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경제·사회·정치적 환경 전반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1 밀레니얼과 Z 세대 서베이(2021 Millennial and Gen Z Survey)’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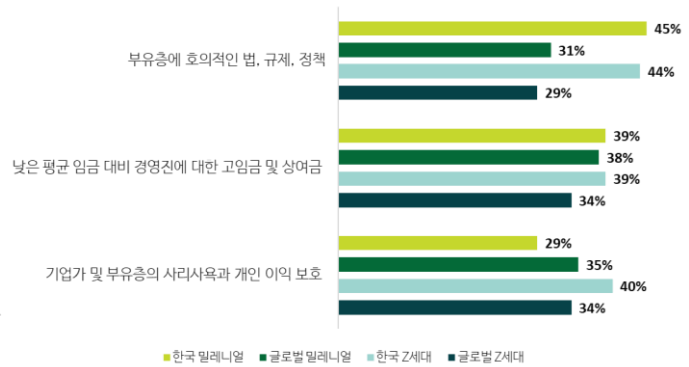
올해로 10 회를 맞는 딜로이트 글로벌의 2021 년 밀레니얼과 Z 세대 보고서는 2021 년 2 월 8 일 부터 18 일까지의 조사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5 개국 22,928 명의 밀레니얼 세대(1983 년 ~ 1994 년 출생자)와 Z 세대(1995 년 ~ 2003 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설문하고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밀레니얼과 Z 세대는 부의 불평등을 심각한 사회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의 69%, Z 세대 표본집단의 6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 경우 글로벌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73%(밀레니얼 세대), 76%(Z 세대)가 강하게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표 1> 사회의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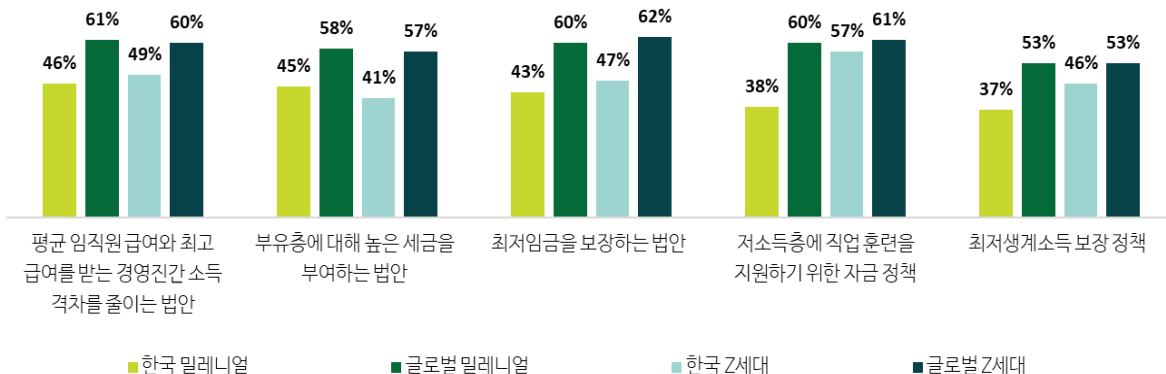


<표 2>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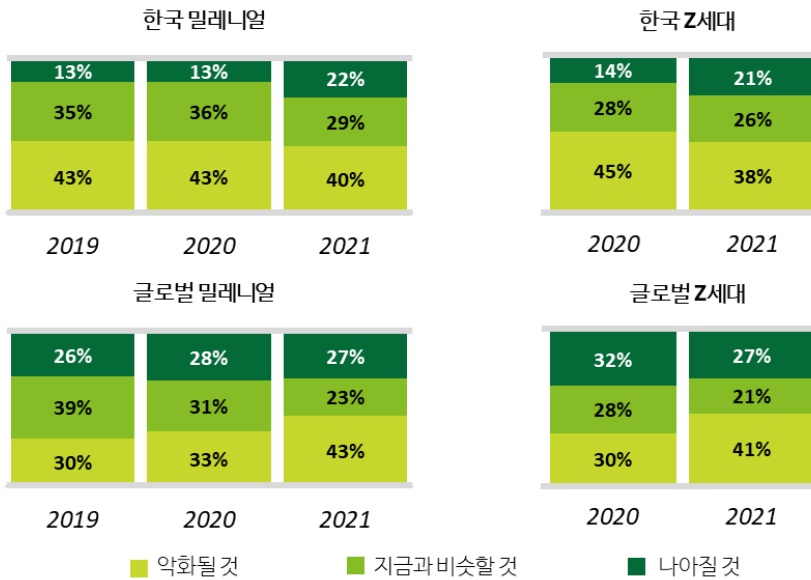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의 밀레니얼과 Z 세대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유층에 호의적인 법, 규제, 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 및 규제 입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임직원 급여와 최고 급여를 받는 경영진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법안, 부유층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법안, 최저임금 보장하는 법안, 저소득층에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정책, 최저생계소득 보장 정책 등에 대해 글로벌 밀레니얼과 Z 세대가 과반이 넘는 비율로 동의한 반면 한국의 밀레니얼과 Z 세대의 동의 비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의 재분배에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글로벌 밀레니얼과 Z 세대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표 3> 부의 재분배 정책에 동의한 비율



이 외에도 한국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는 경제성장과 고용문제를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세대 모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한 점에 공감했으나 이후 밀레니얼은 경제성장, 기후변화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한 반면 Z 세대의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문제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Z 세대가 고용문제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는 30%로 글로벌 Z 세대(2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표 4> 향후 12 개월 동안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예상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밀레니얼과 Z 세대가 미래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개인 재정 상태에 대해 ‘자주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재정 목표를 재검토하고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글로벌 밀레니얼과 Z 세대와 달리 한국의 경우, 근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2 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글로벌 밀레니얼의 경우 2019년 30%, 2020년 33%에서 2021년 43%로 답변 비율이 크게 높아진 반면,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2019년과 2020년 43%로 비슷한 수준에서 2021년에 40%로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 Z 세대도 2020년 45%가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1년에는 38%로 거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습니다.

향후 12 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글로벌 밀레니얼의 경우 2019년 26%, 2020년 28%에서 2021년 27%로 소폭 감소한 반면 한국 밀레니얼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13%의 동일한 비율에서 2021년 22%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Z 세대도 2020년 14%에서 2021년 21%로 늘어났습니다.

정현석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부사장은 한국 밀레니얼·Z 세대 보고서 결과에 대해 “MZ 세대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는 개인의 학벌, 부의 세습, 젠더 등 선천적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의 노력과 성과만을 강조하는 성과주의 기반의 기업 운영으로는 MZ 세대와의 공생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와 공정한 평가로 성과를 분배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 ‘밀레니얼과 Z 세대 서베이(2021 Millennial and Gen Z Survey)’ 보고서 전문은 딜로이트 홈페이지(<http://www.deloitte.com/millennialsurve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